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호 [루게 제24425호] 주제 103 (2014)년 1월 12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경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상장 서홍찬동지와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군부대장병들은 새해 정초부터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들을 거둬 찾아주시며 한없는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군인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군부대장병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구상에 따라 조직된 군부대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수많은 깃들어있다.

군부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비 쏟아지는 탄우속을 헤치고 싸움에 필요한 후방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군인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을 비롯한 수많은 수훈자들을 배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을 보시면서

부대력사의 갈피갈피에는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군인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와 심혈이 그대로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군인생활향상

을 군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시였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에서는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결사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인민군대 군사사업의 중심고리라고 하시면서 2014년을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들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패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해 인민군대에서 콩농사와 물고기잡이를 잘하여 례년에 보기 드문 대풍을 안아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군인생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올해에 콩농사, 수산, 축산의 3대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생활개선에서 이곳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군부대가 군인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선봉대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송으로 사수하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숨으로 사수하자!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후방일군들은 군인들을 위해 제일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전우들이 잘 먹고 잘 입는데서 기쁨과 보람, 영예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걸음 걸음 애로와 난관이 막아나서도 걸음 걸음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안고 이 악하게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올해말에 조선인민군 후방일군대회를 조직하자고 하시면서 후방일군들

은 군인생활개선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안고 대회장에 몇몇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 전자도서실, 도서실을 돌아보시고 과학기술성과자료를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

서 군부대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예술선전대원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부대에 찾아오시어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철저히 관철할 충정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널리 보도하였다.

쿠바의 프렌사 라라나통신은 1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협정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쿠바 텔로호방송도 이날 같은 내용을 여러차례 반복보도하였다.

캄보디아국가라디오방송과 에프엠 90.5방송은 1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 최대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데 대해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은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시였다.

중국의 참고소식망, 평양망, 환구망 등 인터넷트롬페지들, 인디아신문들인 《인디아 익스프레스》, 《파블리크 뉴스》, 수리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바야스》, 《티슈린》, 사우디 아라비아통신, 페바는신문들인 《알 디야르》, 《알 잠후리아》, 아랍추진국평방통신 갈프 뉴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안 오브저버》, 민주공화국 라디오방송, 에프엠 2라디오 방송, 기내국내, 국제방송과 7개 민족어방송, 이말리아신문 《코리에 데 델라 세라》, 마자르투신, 슬로벤스키의 인터넷트롬페지들, 도이칠란드의 주요신문, TV 방송들, 베네수엘라의 텔레부르 TV방송, 우루과이 세. 에이스 36라디오 페넬라리오방송과 로므니아사회주의동맹당, 국제관계 및 경제협조연구소, 브라질 공산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트롬페지들은 1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신년사의 조국통일부분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생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운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력력히 수놓여져있다.

그 성스러운 력사의 전열에는 필승의 신념과 강한 의지로 혁명가의 삶을 빛내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모습도 빛나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78돛이 되는 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권동지의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역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을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혁명가의 삶은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 투쟁속에서 빛나게 된다. 조국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의 빛나는 한생을 관통하고있는 가장 고결한 품도였다.

김형권동지의 이 숭고한 혁명적품도는 선군혁명위업이 개척된 어려운 시기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력사적인 카뮈피에서 항일무장투쟁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장차 무장투쟁을 국내깊이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혁명군 소조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깊이로 확대발전시키시여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구상하여오신 전략적방향이였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국내진출의 어려운 과업을 담당케 받아안으셨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싸우시였다.

주제 19(1930)년 8월 무장소조를 거느리고 조국땅에 들어서신 김형권동지께서는 한몫의 위험이나 회생도 무릅쓰시고 증중첩첩한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삼수, 풍사를 거쳐 풍산군(당시)의 파발리에 이르시어 대담무쌍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였고 깃발힌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쿠키가울이면 이 땅우에 높이 울린 파발리의 총성이 들려온다.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파발리주재소에 들어서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이 고장사람들을 악착하게 탄압하던 《오바시》순사부장들에게 내놓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니 용서할수 없다고 추상같이 웨치시며 복수의 총탄을 안기시였다.

총소리를 듣고 모여온 군중들앞에서 당국로의 처지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남 녀청년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서서 일제를 때려부시자고 호소하신 김형권동지의 격조향방의 신심을 암흑을 불사르는 불씨로 되였으며 국내인민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고무적기초로 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조국의 북방 파발리에서 높이 울리신 원추적렬의 총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명도하시는 조선혁명군의 위력을 만방에 시위한 력사적인 총성이였으며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킨 혁명의 메아리였다.

그후 김형권동지께서는 순간도 멈춤을 모르는 강한 투쟁정신을 지니시고 합정남도의 여러 지역들을 중흥무전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 로선을 결사관철하시였다.

혁명에 대한 굳은 신념과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자 일제교형리들은 어떻게 하나 그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악착하게 달려들었다.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중세기적인 고문, 회유와 기만, 편이든 재판관들과 가혹한 형벌, 보다 살인적인 교문장에서의

이상은 김형권동지에게 있어서 실로 커다란 시련이였다.

말로써는 이루 다 형언할수 없는, 육체마저 지탱하기 힘든 고통속에서도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와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체포된것을 더 참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기시며 잠시도 옥중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으로 수감자들을 교양하시고 그들이 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우도록 이끌어주시며 감옥을 투쟁마당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어느날 김형권동지께서는 수감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손에 무장을 들고 삼천리강토에서 일제를 몰아내야 한다. 총칼로 남의 나라를 빼앗고 세세상치런 날뛰는 일제놈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승리할수 있다!

그이의 말씀은 어두운 감방안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의 가슴속에 나이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투쟁의 불씨로 되였다.

김형권동지께서 일제순사놈을 얼음구멍에 처박아죽인 《피》로 감방에 깔려온 청년에게 필승의 신념을 심어주시는 사실, 신총탄망 로동자들의 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된 청년에게 짬짬이 우리 글을 배워주시며 원수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를 심어주시는 이야기는 오늘도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오죽하면 일제가 김형권동지께서 마포형무소를 적색화한다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일제는 김형권동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캄캄한 독감방에 가두어두는것만으로도 모자라 팔복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 조공만 움켜쥐고 그것의 삶을 파괴하게 하였다.

감옥이 투쟁마당으로 되여가는데 겁을 먹은 일제교형리들이 살인제판들을 벌려놓고 15년의 징역형을 언도했음에도 김형권동지께서는 오히려 눈물을 피고석에 붙여놓고 준엄한 력사의 신고를 내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야말로 우리 강토에 기어든 침략자, 우리 나라의 은금보화를 약탈해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56호  
주제103(2014)년 1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위원장 양형섭	위원 최부일	전용남	로성실
부위원장 김평해	김영대	현상주	림철성
서기장 홍선숙	김영호	리명길	김완수
			윤정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혁명가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신 김형권동지의 심정에 맥박치던 혁명적신념은 오늘 선군으로 존엄높은 이 땅우에 세대와 년대를 이어 길이 빛나고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지니시였던 투철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전 광 남

사 설

사회주의농촌레제 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자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레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할때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뎠는 심장마디에 받아안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한평생 농촌문제해결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바치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당의 명도따라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갈 불타는 열의를 다지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전격 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일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촌문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가 농촌문제를 농민문제라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의 발표, 이것은 우리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 농촌레제가 발표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길에 돌출한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업을 쫓아갈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

사회주의농촌레제는 장구한 실천

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평도밑에 사회주의농촌레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나라 농촌건설에서는 빛나는 승리와 자랑한 전변이 이룩되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추진되는 속에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로 강화되었다.

특히 주체혁명의 새시대, 선군시대에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대규모로 경작토대로 정리되고 자연호흡식물공급자가 힘있게 벌어져 토지문제, 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기술혁명의 불길속에서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으며 두벌농사, 세벌농사의 귀중한 경험도 창조되었다.

당의 농촌건설주상에 따라 농촌에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일떠서고 기계화농업과 같은 사회주의의 선진기도체에 펼쳐졌다. 이 모든 성과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섰다. 세대는 교체되고 사회주의건설의 조건과 환경도 많이 변화했지만, 사위 당과 혁명의 지도적지침, 당의 투쟁방식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사회주의농촌레제는 오늘날 매일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불멸의 대강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변영기를 열어나갈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은 백두산천출영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승리하며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역사적전진의 계속이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촌레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 높이 펼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농촌레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높이 펼쳐는것은 올해를 선군조선의 변영기과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부문을 언제나 중시하고있다. 농업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농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그 부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질수 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올해에도 농업부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전격방향으로 정하였다.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강성변영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농업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는 사회주의농촌레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타르도록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농업에 대한 공명의 방호,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의 개선 등은 농촌레제에서 밝힌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이다. 그의 실현을 높이고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촌레제에 제시된

하나하나의 사상들은 현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 데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레제를 오늘도 총진군의 고무적기치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하여 선군조선의 변영기를 열어나갈수 있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을 동군조선의 변영기과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빛내여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세상에 믿을것은 자기 힘에 있다. 누구도 우리를 자기를 위협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농촌레제는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는 것,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높여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서 있다. 농촌레제관철에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주는 비결이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지금 당의 전투적로소파라 올해의 알곡증산목표를 정명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기세는 대단히 좋다. 지난해에 어려운 조건과 불리한 자연기후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그 기세로 뜻깊은 올해에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하려는 애국의 열정이 각지에서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농촌레제관철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선군조선의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누구나 김정일애국주의를 귀감으로 삼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영농기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축산과 파수, 온실남새와 버섯재배 등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수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명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농촌레제관철을 마구껏 누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는 혁명적기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농속한 조직적수요와 환경한 실천력, 이신적적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어야 한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농업건설을 위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주전격방향으로 정한 우리 당의 승고한 뜻과 크나큰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신인의 강령국표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혁명파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면한 농사치리로부터 시작하여 올해의 모든 영농공정에서 주인공은 자각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포화성을 헤쳐며 진시향량을 생산하고 불타는 고지에 전선원모임을 보장하면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올해 알곡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총돌전진을 벌려나갈수 있다.

농촌에 대한 전당적, 전국가격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농촌레제가 밝힌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중요한 원칙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편관단위들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현대적혁신의 불길 세차게 타번진다

덕천지구관광합기업소에서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석탄을 집중수송

현지에서 보내는 소식에 의하면 년초부터 석탄생산성과 확대되고있는 덕천지구관광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증산한 석탄을 대형화물자동차마다에 가득 싣고 북창화물발전연합기업소에 밀려가 이곳 전력생산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북창지구의 전력, 철도운수부문 일꾼들과 로동계급에게 크나큰 힘과 고무를 안겨준 이번 석탄집중수송은 뜻깊은 올해 거이어나는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선군조선의 변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갈려는 탄부들의 불타는 열의와 열렬한 애국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탄광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탄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석탄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야 대고조전투쟁들에 비약의 승격을 더해줄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승리의

신심과 열의를 새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선진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꾼들부터 화신의 기판자가 되어 아래 탄광들에 내려가 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관련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등 경제조직사업과 지위를 참신하게 하면서 탄부들을 석탄증산투쟁에 적극 불려일으켰다.

연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제남탄광에서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탄광에서는 심부채굴에 들어가는데 맞게 석탄 운반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전력량을 총집중하면서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굴진력량을 계속 보장하면서 하루 석탄생산량을 부단히 늘려나갔다.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라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떨쳐나선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대단한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제남탄광들의 부하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동남나부생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면서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증산하였다.

남양, 덕천, 형봉, 월봉탄광들의 탄부들도 결사적인 의지안고 광막장마에서 세차게 광공전을 벌이면서 새해에 들어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석탄증산에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석탄장들에 시간을 다투며 석탄산이 높이 쌓아지는데 맞게 연합기업소와 탄광들의 일꾼들은 화력탄수송열차들이 들어오는 좁은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보다 짜고들었다.

하여 연합기업소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매일 계획보다 수백의 화력탄을 더 생산하여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갈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마디에 새겨안은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화력탄수송열차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공명의 식량인 석탄이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전량증산의 동음이 더 높고 울려져질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화력탄수송이 긴장한 조건에 맞게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

김없이 동원하면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지난 8일 아침 9시, 연합기업소와 탄광들의 일꾼들과 탄부들의 탄광출구로 적체함마다 석탄을 가득 실은 40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덕천지구의 탄전들을 떠나 북창화물발전연합기업소로 향하였다. 새해의 첫 탄열차들이 펼쳐진 이채로운 광경을 목격한 덕천시의 주민들도 다 거인 걸음을 멈추고 수송행렬을 뜨겁게 마배위하였다.

덕천지구 탄부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내고 편이 대동력기지의 구내로 들어서는 화물자동차들과 석탄은 넘쳐나고 말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줄것을 절절히 부라하는 덕천지구관광연합기업소 당, 행정직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북창의 전력생산자들은 다시한번 힘과 용기를 가다들었다.

북창철도본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도 내일내일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도와나서는 탄부들의 진정에 깊이 감동되어 자신들이 맡은 화력탄수송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류성국

전력생산성과 계속 확대

원산청년발전소에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전력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기술자들을 적극 불려일으켜 그들이 발전설비들을 기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 원산청년발전소의 일꾼들과 전력생산자들이 대고조전투쟁들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다.

당초적 지도밑에 발전소의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생산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이들은 겨울철전에 맞게 물관리를 잘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수력구조물과 발전설비들의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한방울의 물도 허실함이 없이 전력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고있다.

1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전력증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꾼들은 기술자들을 적극 불려일으켜 그들이 발전설비들을 기술

적으로 개조하고 운전조작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높이도록 하고있다.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운영에서 기술규격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엄격한 점검과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력생산을 높이고있다.

3호발전소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주인공다운 자각을 안고 설

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고있다.

4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역시 지력경쟁, 강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력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연세와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로동자들도 전력생산을 함께 책임지는 주인공다운 림장에서 연세와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철일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명도따라 사회주의농촌레제에 관한 레제발표 50돐이 되는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는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포대등판토지개량전투 적극 추진

량 강 도 에 서

량강도에서 포대등판토지개량을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덩이 제시한 알곡과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디에 받아안고 새해벽두부터 포대등판토지개량전투에 떨쳐나선 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십정보의 면적에 1만여의 흙집을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해 11월 선진조선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

면서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때 대하여 가르쳐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포대지구의 감자전투에 흙집이를 진행하여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려일으켰다.

년초부터 포대등판의 드넓은 포전에서 흙집이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도당일련합기업소, 도체신관리마에서는 력량을 집중하여 남마다 흙집이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정숙군과 김형철군 그리고 감산, 풍서군들에서도 수송수단을 동원하여 포대등판의 흙집이

전투에 힘차게 떨쳐나갔다. 삼지연군에서는 흙집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맞게 생산된 거름을 흙집이한 포전들에 실어내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진행되고있다.

도에서는 3월 중순까지 포대등판의 수백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흙집이를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 첫 출발부터 신심있고 기세 좋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공작장에서 현대화, CNC화를 적극 다그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 발전시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를 받아보고 부글부글 끓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을 찾았다.

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에 소비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려는 성일군들의 감동과 열정이 뜨겁게 끓어올라고 합니다. 특히 1차 소비품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어배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증진시키고 기고난 당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세워놓았다고 말하였다.

생산성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원료와 자재보장을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작전이 아주 주도세밀하다. 국내원료를 한가지라도 더 꾸러들인하여 우리의 것에 의지하여 생산을 확대해나가는 성일군들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이와 함께 이미 마련되어있는 수출기지와 현대적인 소비품 생산기지를 리용하여 우리 제품들의 내외진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방공업발전이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는가를 잘 알고있는 일군들이 올해에 전투 목표를 높이 세웠다.

부국강창성투쟁을 말하였다. 《우리는 지방마다 이미 마련된 원료기지를 더 잘 꾸리고 효과있게 리용하는 한편 올해에 새로운 원료기지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소비품생산에서 우리의 몫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올해에 성에서 특별히 힘을

넣으려는 문제의 하나는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공장건설, 생산공정확립을 계속 힘있게 내밀어 계획의 집적발전을 이룩하고 새로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

강계포도술공장 개건화장공사를 올해에 훌륭히 완공하여 우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부상 김영관동무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에 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의치않게 걸쳐 강계포도술공장을 세계적수준에서 꾸리도록 강력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필요조건도 다 취해주셨다고 한다.

우리 인민들이 세계를 굽어보며 마음껏 윤택한 생활을 누리며 행복해하기를 원하는데서 인민 사랑의 높이는 끝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금 여러 과학연구단위의 과학자들이 새해의 첫날부터 공장에 달려나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 무공해를 확립하기 위한 기술연구사업을 마감하는데서 밀고나가는 한편 주정이 낮은 포도주개발에 온갖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성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의하여 포도밭조성정도가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우량종류의 포도 품종개발사업도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성에서는 화장품공업발전에 도 큰 힘을 넣어 5세대화장품 개발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올해에 과학기술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갈 참모리를 든든히 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 꾸러진 원경각의실을 본보기로 하여 성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빠른 기간안에 과학기술보급을 내오도록 하는 조직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성일군들과 생산단위일군들에 대한 재교육강습제도 세워졌다.

성의 과학기술부문 국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창고안, 발명가대열이 지난 시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고 한다.

들을수록 올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목표가 뚜렷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세 또한 대단했다.

이들의 신심과 락판에 넘친 모습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가슴씩차게 그려보게 하였다.

본시기자 리 철 옥

다 바쳐가고있다.

성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의하여 포도밭조성정도가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우량종류의 포도 품종개발사업도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성에서는 화장품공업발전에 도 큰 힘을 넣어 5세대화장품 개발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올해에 과학기술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갈 참모리를 든든히 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 꾸러진 원경각의실을 본보기로 하여 성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빠른 기간안에 과학기술보급을 내오도록 하는 조직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성일군들과 생산단위일군들에 대한 재교육강습제도 세워졌다.

성의 과학기술부문 국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창고안, 발명가대열이 지난 시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고 한다.

들을수록 올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목표가 뚜렷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세 또한 대단했다.

이들의 신심과 락판에 넘친 모습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가슴씩차게 그려보게 하였다.

본시기자 리 철 옥

다 바쳐가고있다.

성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의하여 포도밭조성정도가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우량종류의 포도 품종개발사업도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성에서는 화장품공업발전에 도 큰 힘을 넣어 5세대화장품 개발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올해에 과학기술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갈 참모리를 든든히 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 꾸러진 원경각의실을 본보기로 하여 성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빠른 기간안에 과학기술보급을 내오도록 하는 조직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성일군들과 생산단위일군들에 대한 재교육강습제도 세워졌다.

성의 과학기술부문 국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창고안, 발명가대열이 지난 시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고 한다.

들을수록 올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목표가 뚜렷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세 또한 대단했다.

이들의 신심과 락판에 넘친 모습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가슴씩차게 그려보게 하였다.

본시기자 리 철 옥

다 바쳐가고있다.

성일군들의 작전과 지휘에 의하여 포도밭조성정도가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우량종류의 포도 품종개발사업도 동시에 벌어지고있다.

성에서는 화장품공업발전에 도 큰 힘을 넣어 5세대화장품 개발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올해에 과학기술열풍을 세계에 일으켜나갈 참모리를 든든히 하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에 꾸러진 원경각의실을 본보기로 하여 성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빠른 기간안에 과학기술보급을 내오도록 하는 조직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성일군들과 생산단위일군들에 대한 재교육강습제도 세워졌다.

성의 과학기술부문 국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창고안, 발명가대열이 지난 시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도 보인다고 한다.

들을수록 올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비약을 안아오기 위한 목표가 뚜렷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세 또한 대단했다.

이들의 신심과 락판에 넘친 모습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가슴씩차게 그려보게 하였다.

본시기자 리 철 옥

## 끝장을 볼 때까지

◇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은 곧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비상한 자각이고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이 분발하여 일떠섰다.

식료일용공업 책임일군은 《지난해 성에서는 생산조건이 어느때나 다름없었지만 생산성상화를 위한 방법론을 찾아내고 그 실현을 힘있게 내밀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 소비품생산의 정상화는 원료, 자재문제에 직면하여 바로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사상문제라는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말이다. 오늘날 소비품생산에서 조건과 발을 앞세우면서 우는소리나 하는 사람은 단손한 패배주의자가 아니다. 당의 사상유위정신이 없는 사람, 사회주의수호정신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대에 설 자리가 없다는것을 뼈에 새긴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년초부터 어떻게 하나 제힘으로 공장을 돌리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악하게 뛰고 또 뛰고있다.

◇ 원료, 자재의 국산화실현, 이것이 경공업발전의 종자이고 생명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발전엔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역갱생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의 위생과학자들이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 책동속에서든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성공하여 조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친것처럼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자신심을 가지고 달려들면 못해낼 일이 없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투쟁을 일으킬 때 어디서나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될수 있다.

◇ 우리의 경공업을 전면적으로 현대화된 세계적인 경공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자신감과 경쟁심을 가지고 너도나도 분발할 때 최첨단의 높은 경지를 개척해나갈수 있다.

경공업전선을 지켜선 사람이라면 그가 일군이건 로동자이건 누구나, 어디서나 착상하고 발명하고 창조하는 과학기술열풍을 세계에 일으켜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개발에 떨쳐나서야 한다. 비록 자그마한 지방산업공장, 생산협동조합이라도 낮은것에 도전하고 앞선 단위의 끊임 없는 경쟁속에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제품을 많이 개발하자.

우리는 실생활체계를 통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있는것을 시시각각으로 느끼고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의 요구, 인민의 의견앞에 꾸준히 성실하며 생산자로서의 자각을 띠고나오자기 사업을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경공업발전전략을 틀어쥐고 인민생활문제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동당당대, 사회주의민노선기가 우렁차게 울려나올 때까지 혁신 또 혁신하고 전진 또 전진하자.

가 보전할 줄은 애국심을 지니고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겨울철의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령, 인민의 총부호로서의 분투를 다하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생산현장에서 달려나오자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걸린 문제를 즉시에 풀어나가면서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삼아 일떠나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고있다.

새해 첫 전투조직과 지휘에서 이끈 일군들이 지난 혁신적인 일보와 로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애국적열의로 하여준 전투성과는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온 공장에 비약의 불바람이 세계에 일어나고있다.

본시기자 명 흥 속

# 세 차게 타번지는 국산화열풍

## 각 지방 기계공업 부문 로동계급

새해전투로 들끓고있는 평양방직기계공장에 대한 취재기에서였다.

우리는 공장의 올해전투작전에 대해 알고싶어 지배인의 방부터 찾았다.

지배인의 방안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려던 참나에 복도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말했다.

《지배인동지는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총합장 현장에 있을겁니다.》

단정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단정하리라는듯이 그루를 막아 계속했다.

《우리 지배인동지는 요즘 눈코 뜰새가 없이 바쁩니다. 방직공장들에서 주요부속품들의 국산화를 실현한 우리 공장의 복직기계조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다들 미안해하고있으니 배운 아미 신의주방직공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미처 숨을 돌릴새가 없습니까.》

국산화열풍, 그 순간 우리는 그의 말에서 이룰수 없는 시대의 번천 승격을 느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복직기계를 유년장대직기로 개조한 기술혁신안은 경제적으로 대단한것이였다.

우선 복에 의한 씨실공공을 창대로 전환하면서 탈쟁이를 교체하는데 드는 품이 없어졌다. 결국 직포공들의 실적이작업이 훨씬 줄어들어 작업능률이 올라갔으며 천생산물도 높아졌다. 직포공들의 기대담대수도 높아졌다.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방직설비부속품들을 국산화하고 오래

된 많은 직기들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천생산을 늘일수 있게 된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었다.

그 기술혁신안을 올해에 모든 방직공장들에서 대대적으로 도입하여 직기가동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줬다고 각 지방공장의 일군들부터 두말없이 나섰었다.

자력갱생의 보검을 틀어쥐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방직기계, 방직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요소, 투쟁기풍이 안겨왔다.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방직설비부속품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바치고있는 이들의 투쟁의식은 방직기계공업관리국에서 이어진 취재기에서 더 잘 알리게 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의 기포용생산자들이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여러 기포품들의 국산화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기술준비에 들어갔다.

신의주방직기계공장에서 강철을 비약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기술도입에 성공한데 기초하여 공업화실현을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경공업발전의 길을 뚜렷이 밝혀 주시고 정책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함 정도와 손길에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고관점이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높여왔다.

국산화열풍속에 몸을 잡지 않고서는 거창한 시대의 전진에 발을 맞추지 못하는 람오자가 될수 있다는 각각이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고 관리국의 기상관을 말하였다.

그렇다.

세차게 타번지는 국산화열풍,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경공업발전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비약의 불바람이 아니겠는가.

본시기자

# 혁신의 불바람속에 높아가는 생산실적

## 박천견직공장에서

며 현대적인 비로도생산공정을 새로 꾸려 우리 인민들의 날로 높아가는 비로도에 대한 수고를 원만히 보충할수 있는 전일 훨씬 노력하고있다.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 가정들에 기쁨을 더해준 담요직장 중업원들의 기세 또한 총천연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적 건설에서 밀다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비로도와 담요는 이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여오는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 생산한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평양에 1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에 보내주었

다. 박천견직공장의 기계가 첫걸음부터 이만저만 아니었다. 새해 첫 한주동안에만도 비로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로 정상화되었다. 데르트 인건화와 일반천생산체화도 매일 훨씬 넘쳐 나가고있다.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 가정들에 기쁨을 더해준 담요직장 중업원들의 기세 또한 총천연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적 건설에서 밀다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비로도와 담요는 이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여오는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 생산한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평양에 1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에 보내주었

다. 박천견직공장의 기계가 첫걸음부터 이만저만 아니었다. 새해 첫 한주동안에만도 비로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로 정상화되었다. 데르트 인건화와 일반천생산체화도 매일 훨씬 넘쳐 나가고있다.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 가정들에 기쁨을 더해준 담요직장 중업원들의 기세 또한 총천연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적 건설에서 밀다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비로도와 담요는 이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여오는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 생산한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평양에 1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에 보내주었

다. 박천견직공장의 기계가 첫걸음부터 이만저만 아니었다. 새해 첫 한주동안에만도 비로도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배로 정상화되었다. 데르트 인건화와 일반천생산체화도 매일 훨씬 넘쳐 나가고있다.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 가정들에 기쁨을 더해준 담요직장 중업원들의 기세 또한 총천연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적 건설에서 밀다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비로도와 담요는 이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여오는 널리 알려진 제품이다. 지난해에도 공장에서 생산한 마안산담요를 많이 생산하여 평양에 1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에 보내주었



현대적으로 꾸러진 편직사생산공정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본시기자 김 중 현

# 도로건설에 총력량을 집중

## 어량천발전소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사업계획에 힘차게 떨쳐나선 어량천발전소건설장에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뉘고있다.

어량천2호발전소 조업준비를 다그치고 어량천5호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발전소건설자들은 지금 북면의 간추위에서 어량천3호 발전소 도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미 70여리간의 도로를 기본적으로 형성해놓은 건설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도로건설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위 대개는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미 마련된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사업 계획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새해부터 전투적조직과 지휘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어량천4호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도로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100리에 달하는 구간에서 도로가 건설되면 어량천4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물동량을 제때에 운반하여 발전소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어량천4호발전소 도로를 단순히 작업도로나 아니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번듯한 도로로 건설하기 위하여 종전의 설계를 혁신하고 시공조직과 지휘를 면밀하게 짜고있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자체보장문제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나가고있다.

건설자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 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도로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중대,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무산판상연합기업소대대의 전투원

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대중적열정을 높여 발휘하면서 매일 수십m에 달하는 양면에서 도로건설을 진행해나가고있다. 또한 착공지의 보수정비를 짜고들고 합리적인 방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생기평평산중대의 전투원들은 도로건설을 남다른 팔발 열정을 안고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맡겨진 전투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청년들처럼 단정하고 청결하고 부끄럼 없는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승리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앞만보고 도사공작을 벌이면서 해를 지고있다. 리더의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중대와 온성군, 어량천, 경성군중대를 비롯한 여러 중대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도 부단적인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투쟁이 열렬히 진행되고있다.

건설지휘부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양면열의와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어량천4호발전소 도로건설은 지금 빠른 속도로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 평양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경제강국을 떠받치는 쌍기둥이며 금속,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년초부터 불타는 애국의 마음 안고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강국을 떠받치는 쌍기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박정훈, 전명성, 박동춘동무를 비롯한 시인민위원회의일군들이 강철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10월 평양시에서는 수백대의 화물자동차들이 천수백대의 파월을 실어 새해부터부터 철강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천리마철강연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이날 천리마철강연합기업소 내부에는 파월을 가득 실은 기차의 증기연기와 공장, 기업소, 시기관, 대학들에서 떠나보낸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 꼬리를 물고 들어섰다. 서성, 대동강, 락랑, 선교구역과 중구역을 비롯한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수직에서 보내준 파월을 모으고있다. 강철전선에 대한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은 천리마철강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이날 시의 주변구역, 군들에 서도 많은 파월을 모으고 여러급 금속사업소들에 이어보냈다. 끝 말 사인 특파기자 최 수 북

이 꼬리를 물고 들어섰다. 서성, 대동강, 락랑, 선교구역과 중구역을 비롯한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수직에서 보내준 파월을 모으고있다. 강철전선에 대한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은 천리마철강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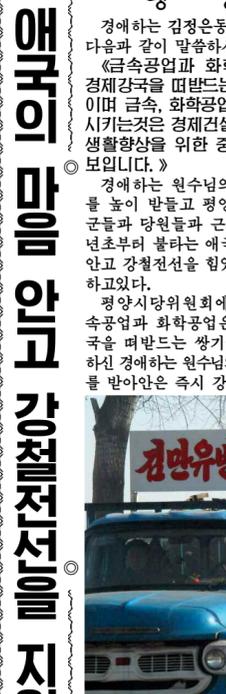
이날 시의 주변구역, 군들에 서도 많은 파월을 모으고 여러급 금속사업소들에 이어보냈다. 끝 말 사인 특파기자 최 수 북

이 꼬리를 물고 들어섰다. 서성, 대동강, 락랑, 선교구역과 중구역을 비롯한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교직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안고 수직에서 보내준 파월을 모으고있다. 강철전선에 대한 시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은 천리마철강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이날 시의 주변구역, 군들에 서도 많은 파월을 모으고 여러급 금속사업소들에 이어보냈다. 끝 말 사인 특파기자 최 수 북

【평양 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김윤선 오사카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03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떠나갔다 학생소년예술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시에서



